

# 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형 초·중통합학교 만들겠다”

### 월례조회 통해 의지 피력...2022년 20개 교 운영 목표

###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작은학교 독자생존 어려울 것”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합학교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남형 초·중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1일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9월 월례회의에서 “전남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멀리 헤아려 대비하지 않으면 가까워서 걱정이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는 공자의 말을 빌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전남의 소규모 학교들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동안에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 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 개선, 또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20년 전 도내 11개의 초·중·중·고 통합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물리적 통합에 불과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장 교육감은 따라서, “이제 다른 관점과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며 “면 단위 30~4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초·중통합학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가 구상하는 ‘전남형 초·중통합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해 공간을 혁신하고, 학교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스마트 교실’을 제대로 만들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남 미래 에듀테크의 산실로 육성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가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교사들이 초·중학교를 넘나들며 교육과정을 연계해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초·중 통합학교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고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청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매력적인 유학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초·중등 자격증 구분에 의한 교원 배치의 한계, 복수자격 교원의 겸임 기피,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미비 등이 통합학교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학기에 초·중통합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9월 1일자로 20개 학교를 지정해 준비한 뒤 2022년 3월 1일자

로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성과를 보아가며 그 수를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초·중통합학교 추진단을 운영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월례조회에서 9월 1일자 교원 인사와 관련해 “향후 인사에서 지난 3월 출범한 도교육청 인사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혁신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지정학교 학교장 임용제, 학교장 경영실적 평정제 등을 도입해 점수 위주 서열화된 교장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전문직도 발탁인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광주동부교육청, ‘학원대상 집합금지’ 준수여부 점검

### 대형학원 운영 금지 · 일반학원 10인 이상 집합 금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난 8월29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8월29일~9월10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8월27일 낮 12시부터 9월10일 낮 12시까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운영이 금지됐다. 300인 미만 일반학원의 경우에는 휴원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한 실 당 10인 미만

(강사포함 9명까지)의 인원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 8월29~31일 3일 동안 북·동구 지역 81개의 학원 현장을 방문했다.

그 중 운영하고 있는 41개 학원에 대해 한 실 당 10인 미만 교습 여부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환기, 소독, 발열체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했고, 대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인호기자



## 나주교육청, ‘월례조회 · 청렴다짐대회’ 개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1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 및 청렴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전직원이 모이는 대신 교육장, 과장, 센터장, 팀장 그리고 신규직원 및 전입직원만 참석해 가운데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날 청렴 다짐의 날 행사는 청렴한 생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렴의지를 다짐으로써 업무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청

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대표의 청렴 다짐 7개항 ▲청렴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경쟁력이다 ▲친절은 마음과 함께, 청렴은 행동과 함께한다 ▲무관심으로 키우는 부패, 관심으로 청렴을 지킨다 ▲청렴하고 당당한 나, 전남교육이 멋있게 바로선다 ▲내가 내민 깨끗한 손은 내 아이가 잡게 될 청렴의 손이다 ▲비움은 채움의 첫걸음이며 청렴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슬기로운 공직 생활 부패와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를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영길 교육장은 “오늘 청렴 다짐의 날 행사를 비롯한 여러 활동들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나주교육지원청에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채재본부

## 무안행복초 · 중학교 개교 지원... ‘아름다운 행보’

### 15학급(병설유치원 3학급) · 중학교 5학급으로 첫 학사일정 시작



김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취임 첫

날인 9월 1일에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및 무안행복중학교 등교 맞이로 신입교육장 첫 행보를 보였다.

무안행복초·중학교는 남악지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옹동지구에서 개교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 15학급(병설유치원 3학급), 중학교 5학급으로 첫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무안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이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어렵게 개교하는

학교를 위해 1일 교통안전 지킴이, 발열 체크, 손소독제 배부 등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등교지도에 동참했다.

김란 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개교학교에 보탬이 되고자 했으며,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교육철학으로 무안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념을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교대부설초, ‘맞춤형 학습지도 공부방’ 운영

### 오는 12월 11일까지

광주교대부설초가 9월1일~12월11일 광주교대 재학생들과 함께 ‘맞춤형 학습지도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1일 광주교대부설초에 따르면 ‘맞춤형 학습지도 공부방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생들 간 배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배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됐다. 광주교대부설초의 맞춤형 학습지

도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본교 학생들의 수학 기초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고,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맞춤형 학습지도에 만족한 바 있다.

특히 광주교대(최도성 총장)는 광주교대 부설초에서 수학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움 생활 습관 형성 및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생(예비교사) 12명을 ‘맞춤형 학습지도 공부방’ 보조교사(장학생)로 추천했다.

조인호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